KIEP
세계경제 포커스
World Economy Focus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2021년 12월 24일 Vol. 4 No. 55 ISSN 2635-5981

한·우즈베키스탄 정상회담 주요 내용과 시사점

김초롱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북방경제실 러시아유라시아팀 연구원 (crkim@kiep.go.kr, 044-414-1124)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T.044-414-1114 F.044-414-1001 • www.kiep.go.kr

차 례

1. 한·우즈베키스탄 경제협력 개요
2. 한·우즈베키스탄 정상회담 주요 내용
3. 시사점

주요 내용

▶ 2021년 12월 17일 한·우즈베키스탄 정상회담이 개최되었으며, 이에 본 자료에서는 정상회담의 주요 내용을 평가하고 향후 양국의 협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경제 △사회·복지 △디지털·혁신 분야에 관한 협의를 진행함.

- [경제]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은 △에너지 △자원 △금융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양국간 교역·투자 확대를 도모하고자 함.
- [사회·복지] 한국 정부는 △교육 △보건·의료 △도시개발 등의 분야에서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개발 및 복지 정책과 연계하여 협력을 강화하고자 함.
- [디지털·혁신] 양국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디지털경제, 그린에너지 전환을 위해 혁신기술 도입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양국은 ICT, 디지털 분야의 협력을 확대할 계획임.

▶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은 총 7건의 MOU와 2건의 정부간 협정을 체결하는 등 실질적인 회담 성과가 도출되었음.

- 양국이 의회 및 정부부처 간 신규 협의체를 구성하는 데 합의함으로써 사업 추진을 위한 소통 채널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됨.
-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이 우즈베키스탄 상원에 한국 협력 전담 특별위원회 설치, 투자대외무역부에 한국 전담 차관직 신설을 약속하는 등 한국과의 협력 강화 의지를 보인 점은 고무적임.

▶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은 기존 제조업, 농업, 의료 분야의 협력을 강화 및 확대하고, 에너지, 자원 등 신규 협력 가능 분야를 발굴할 필요가 있음.

- 양국은 감염병, 기후변화 대응, 디지털 전환 등 새로운 글로벌 패러다임에 맞춰 교류를 확대하고, 지속가능한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ODA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빈곤퇴치, 교육 및 의료 역량 강화, ICT 인재 육성 등을 위한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있는바, ODA 사업을 통한 상호호혜적 협력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임.

1. 한·우즈베키스탄 경제협력 개요

■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은 1992년 수교 이후 2019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었으며, 고위급 회담, 정부 간 협의체, 민간 협력 등을 통한 교류가 지속되고 있음.

-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은 지난 30년간 정부 및 민간 협력을 추진해왔으며, 과거 대우자동차의 진출로 구축된 제조업 분야의 교류가 양국의 경제협력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됨.[1)]
- 우즈베키스탄은 2016년 말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집권 후 '2017~2021 우즈베키스탄 개발 전략'을 수립해 경제 개방·자유화, 법치주의 강화, 행정 효율화 등 전방위적 개혁을 추진하고 있음.[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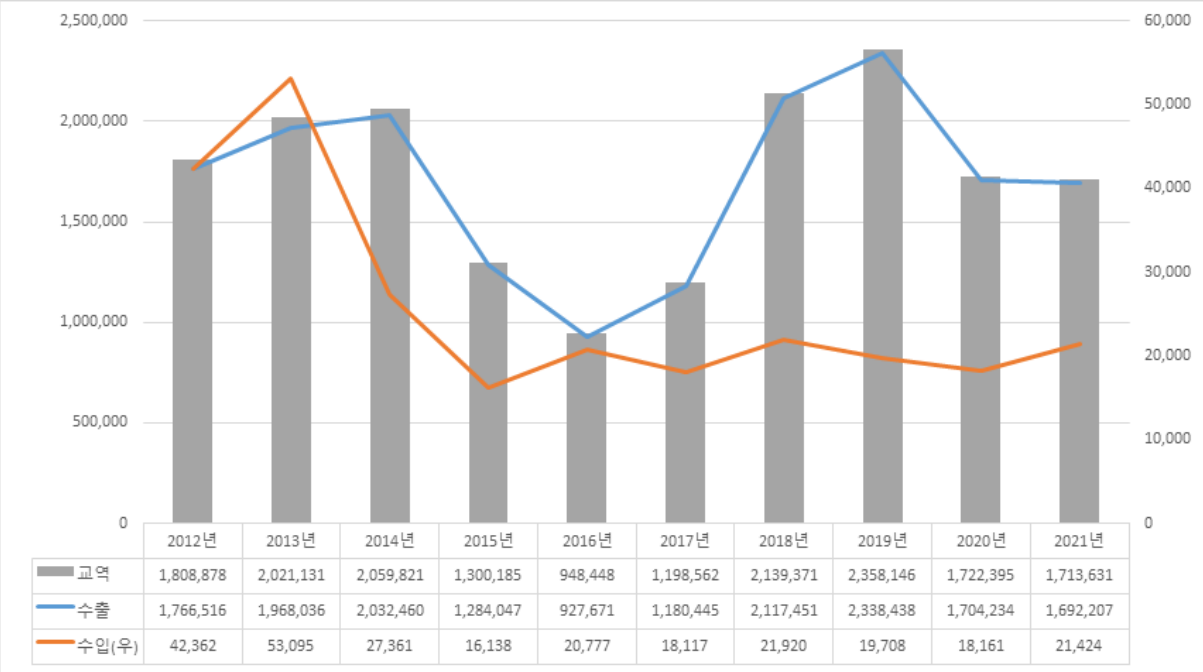
■ [교역] 한·우즈베키스탄 교역은 2020년 말 기준 수출액 17억 6,651억 달러, 수입액 4,236만 달러, 교역액 18억 887만 달러로 한국 전체 교역의 0.2% 수준임.

-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의 교역에서는 한국 수출액의 비중이 98.9%(2020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어 양국 간 수출입 불균형이 심한 상태임.
-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은 2020년 기준 자동차부품(48.2%), 승용차(8.0%), 기타 잡제품(8.0%), 합성수지(3.8%), 원동기(3.1%)이며, 같은 기간 수입품목은 펄프(43.5%), 순면직물(13.4%), 식물성한약재(10.9%), 과실류(8.9%), 면사(6.2%)로 구성됨.[3)]
- 한·우즈베키스탄 교역액은 2019년 최고치인 23억 5,814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2020년에는 코로나19 여파로 소폭 줄어든 것으로 평가됨.
- 양국 교역은 2014년 최초로 20억 달러를 초과한 20억 5,982만 달러를 달성했으나, 2015년에는 전년대비 36.9% 감소한 13억 18만 달러를 기록함.
  - 2015년 우즈베키스탄은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 주변국의 경기침체 여파로 해외이주노동자들의 송금 축소, 대러시아 수출 감소, 자국 화폐가치 하락 등의 문제를 경험하였고 이러한 충격이 양국 교역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4)]

1) 「우즈벡의 대우는 살아있다 이번엔'섬유 신화'를 쓴다」(2008. 5. 26), 『중앙일보』(검색일: 2021. 12. 21).
2) Gazeta.uz(2017. 2. 7), "Президент утвердил Стратегию действий по развитию Узбекистана"(검색일: 2021. 12. 21).
3) 한국무역협회, MTI 4단위, 2020년 기준(검색일: 2021. 12. 21).
4) 코트라 해외시장뉴스(2016. 1. 18), 「한-우즈베키스탄 무역투자 동향」(검색일: 2021. 12. 21).

그림 1. 한국의 대우즈베키스탄 교역액(2012~21년)

(단위: 천 달러)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교역	1,808,878	2,021,131	2,059,821	1,300,185	948,448	1,198,562	2,139,371	2,358,146	1,722,395	1,713,631
수출	1,766,516	1,968,036	2,032,460	1,284,047	927,671	1,180,445	2,117,451	2,338,438	1,704,234	1,692,207
수입(우)	42,362	53,095	27,361	16,138	20,777	18,117	21,920	19,708	18,161	21,424

주: 2021년 자료는 11월까지임.
자료: 한국무역협회 K-stat(검색일: 2021. 12.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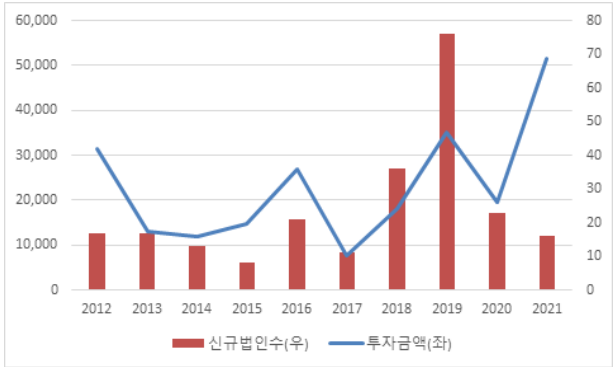
■ [투자] 한국의 대우즈베키스탄 누적투자액은 2020년 말 기준 7억 7,379만 달러를 기록함.[5)]

- 한국의 대우즈베키스탄 연간투자액은 2021년 9월까지 5,142만 달러로 최고액을 갱신하고 있음.
- 2020년에는 코로나19 여파로 1,946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이는 2019년 3,508만 달러 대비 약 44.5% 감소한 수치임.
- 한국의 주요 투자 분야는 제조업(30.4%), 부동산업(3.8%), 광업(3.1%), 금융 및 보험업(2.7%), 정보통신업(2.7%) 순임.
- 2016년 말 미르지요예프 정권 이후 투자액과 신규법인 수가 증가하다가,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투자액이 일시적으로 하락했다가 다시 회복되는 모습을 보임.
  - ○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2017년부터 시작한 경제 개방 및 자유화 정책이 국내 사업 환경을 개선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6)]

5)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2021.5), 『우즈베키스탄』, p. 2.
6) 세계은행에서 진행하는 Doing Business 순위가 2015년 141위(총 189국)에서 2020년 69위(총 190개국)로 72단계 상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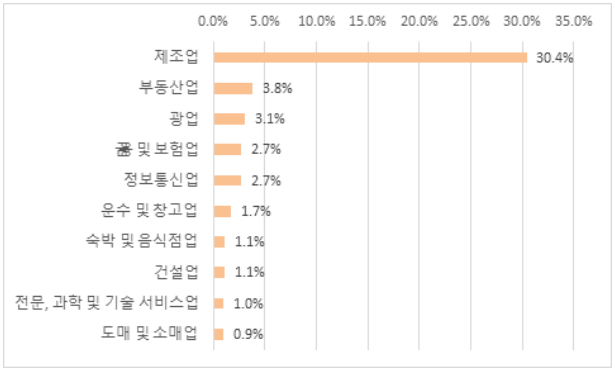
그림 2. 한국의 대우즈베키스탄 투자액(2012~21년)

(단위: 천 달러, 개)



주: 2021년 자료는 9월까지임.
자료: 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검색일: 2021. 12. 19).

그림 3. 한국의 대우즈베키스탄 분야별 투자 비율



주: 2021년 9월까지 자료를 토대로 미분류(기타) 통계를 제외한 상위 10개 분야 선정.
자료: 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검색일: 2021. 12. 19).

■ [ODA] 한국의 대우즈베키스탄 원조 규모는 2020년 기준 5,366만 달러 수준이며, 한국은 ODA 지원을 통해 우즈베키스탄의 발전 및 현대화 지원을 도모함.[7)]

- 한국은 우즈베키스탄을 1기(2012~15년), 2기(2016~20년), 3기(2021년~) 중점협력국으로 선정하여, 유·무상 지원을 하고 있음.
  - ○ 한국 정부는 약 30년간 우즈베키스탄에 1억 6,000만 달러 규모의 무상원조를 제공함.[8)]
- 주요 지원 분야는 △교육 △물관리 및 보건위생 △공공행정 △지역개발 등이며, 우즈베키스탄의 인적자원 개발, 인프라 구축, 공공부문 역량 개선을 도모함.[9)]
- 한국 정부는 2021년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해 △포용 △상생 △혁신 △함께 등 4대 전략목표를 토대로 12개의 중점과제를 추진하고자 하며, 코로나19, 기후변화 등을 고려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임.[10)]

7) ODAKorea, 국별 현황, 우즈베키스탄, https://www.odakorea.go.kr/countryProfile?ctryCode=UZB; 우즈베키스탄 국가협력전략(2019. 12), 관계부처 합동(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1. 12. 21).
8) 「KOICA-우즈베키스탄 2022-2024 무상원조 협력프로그램 MOU 체결」(2021. 12. 17), 『부산일보』(검색일: 2021. 12. 21).
9) 우즈베키스탄 국가협력전략(2019. 12), 관계부처 합동(검색일: 2021. 12. 21).
10)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1-2025)(2021. 1. 20), 관계부처 합동(검색일: 2021. 12. 21).

2. 한·우즈베키스탄 정상회담 주요 내용

■ [개요] 2021년 12월 17일 한·우즈베키스탄 정상회담이 개최되었음.[11]

- 한·우즈베키스탄 정상회담은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의 국빈 방한 기간(12. 16~18)에 진행되었음.
- 이번 회담은 문재인 대통령과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간 세 번째 대면 정상회담이며,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의 2번째 방한 일정 중 진행되었음.
  - 양국 대통령은 2021년 1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화상으로 정상회담을 진행한 바 있음.[12]
-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정상은 지난 30년간 총 18번 정상회담을 개최했으며, 정상회담 외 총리, 장관, 국회의장 등 고위급 인사 교류가 진행되었음.[13]

■ [경제]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은 △에너지 △자원 △금융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양국 간 교역·투자 확대를 도모하고자 함.

-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은 '에너지대화 채널 구축 협력 양해각서', '희소금속과 동합금 생산기술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함.
  - 에너지 분야에서 양국은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에너지 효율 개선 협력에 대해 합의했으며, 한국 정부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진행되는 인프라 사업에 한국 기업이 참여하거나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우즈벡 정부의 지원 강화를 요청함.
  - 희소금속 분야에서는 한·우즈벡 희소금속센터를 주축으로 금, 구리, 몰리브덴 등 우즈베키스탄의 지하자원과 한국의 가공기술을 활용해 고부가가치 소재부품 생산이 가능한 협력모델을 모색할 예정임.[14]
- 수출입은행은 대형사업 추진을 위해 '경협증진자금(EDPF) 협정'을 체결했으며, 이를 토대로 우즈베키스탄의 교통·에너지·수자원 등 분야에 공공사업과 민관협력사업(PPP) 형태로 경제협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EDPF를 활용해 타슈켄트주에 한·우즈벡 반도체 및 전자제품 생산 클러스터 구축을 제안하였는데, 이러한 협력이 확대되면 향후 우즈베키스탄의 중고부가가치 제조업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임.[15]
- 한국 정부는 2019년 FTA 체결을 위한 경제영향평가 공동연구 추진 MOU를 시작으로 우즈베키스탄과 교역 및 투자 증진을 위해 '한·우즈벡 무역협정(STEP)' 관련 협상을 진행하고 있음.[16]

---

11) 「문재인 대통령,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관련 서면브리핑」(2021. 12. 17),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검색일: 2021. 12. 21).
12) 외교부(2019), 『우즈베키스탄 개황』, p. 51.
13) 같은 기간 한-카자흐스탄 정상회담 횟수는 11번임. 외교부(2019), 『카자흐스탄 개황』, p. 76.
14) 한·우즈벡 희소금속센터는 2019년 4월 문재인 대통령의 우즈베키스탄 방문 당시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개소한 협력 기관임.
15) Gazeta.uz(2021. 12. 17), "О чем говорили президенты Узбекистана и Южной Кореи"(검색일: 2021. 12. 21).
16) 한-우즈베키스탄 STEP, https://www.fta.go.kr/main/situation/kfta/lov1/uz/1/(검색일: 2021. 12. 21).

■ [사회·복지] 한국은 △교육 △보건·의료 등의 분야에서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개발 및 복지 정책과 연계한 협력을 강화하고자 함.

- 양국 정부는 '2022-2024 (무상)협력 프로그램에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한국은 향후 3년간 우즈베키스탄과 감염병 대응, 교육, 디지털 협력을 추진할 예정임.
  - ○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우즈베키스탄 투자대외무역부는 2021년 8,800만 달러 규모의 무상원조 사업에 대한 합의를 했으며, 연수사업, 봉사단 파견 등을 진행할 예정임.
- 양국은 '한·우즈벡 보건협정을' 체결했으며, 해당 문서는 정보 공유, 공동위원회 구성, 필수적 교류 보장, 자국민 보호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 우즈베키스탄은 한국에 의료인 교육, 병원 운영, 건강보험 분야의 협력을 요청한바, 한국 정부는 우즈베키스탄에 한국의 보건·의료 체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실무협의체를 구축하는 등 지원을 약속함.

■ [디지털·혁신] 양국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디지털경제, 그린에너지 전환을 위해서 혁신기술 도입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양국은 ICT, 디지털 분야의 협력을 확대할 계획임.

-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은 '스마트시티 개발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우즈베키스탄은 한국의 ICT 기술을 활용한 효율적인 신도시 구축과 기술협력을 기대하고 있음.
- 양국 정부는 '스마트팜 산업기술 혁신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을 도입해 우즈베키스탄의 농업 생산성을 확보하고 경작지 감소 문제 해결을 도모하고자 함.[17)]
  - ○ 농업은 우즈베키스탄의 주요 산업으로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농업 분야의 신기술 도입을 통해 농업용수 부족, 경작지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고부가가치 농산물 생산을 도모함.
-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은 '전기자동차 산업 기술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현재 우즈베키스탄에서 발표한 한국형 전기자동차 생산 계획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됨.[18)]
  - ○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전기차 국내 생산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비싼 전기차 가격 및 수리비용, 충전 인프라 부재 등으로 우즈베키스탄의 전기차 보급은 아직 낮은 수준임.[19)]
  - ○ 전기차 생산 역량 강화는 경제발전 측면에서 중고부가가치 제조업 역량 강화, 글로벌 시장 진입 용이성, 기후변화 문제 해결 등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우즈베키스탄과 같이 제조업 역량을 갖춘 중진국 입장에서는 전략사업으로 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17) KOTRA(2021. 4. 6), 「우즈베키스탄의 스마트팜 트렌드」, 해외시장뉴스(검색일: 2021. 12. 21).
18) Sputnik(2021. 11. 9), "В Бухаре наладят выпуск южнокорейских электромобилей"(검색일: 2021. 12. 21).
19) 설문조사 결과 우즈베키스탄 소비자의 약 25%만이 자동차 구입 시 전기차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KOTRA(2021. 3. 26), 「우즈베키스탄의 전기차 트렌드」. 해외시장뉴스(검색일: 2021. 12. 21).

표 2. 한·우즈벡 정상회담 주요 내용

협력 분야	주관 부처	서명 문서	주요 내용
경제	(한)산업통상자원부 (우)에너지부	에너지대화채널 구축 양해각서	- 신재생에너지 개발, 에너지효율 개선 협력 강화 - 한국 기업의 우즈벡 인프라 사업 참여 협조
	(한)한국생산기술원 (우)투자대외무역부	희소금속과 동합금 생산기술 협력 양해각서	- 한·우즈벡 희소금속센터 운영 평가 - 고부가가치 희소금속 소재부품 개발
	(한)수출입은행 (우)투자대외무역부	EDPD 금융지원 양해각서	- 우즈벡 공공 및 민관협력사업 진출을 위한 금융지원 기반 마련 - 우즈벡 대규모 인프라 사업에 한국 기업 진출 기회 마련
사회·복지	(한)한국국제협력단 (우)투자대외무역부	2022-2024 (무상)협력 프로그램에 관련 양해각서	- 감염병 대응, 교육, 디지털 협력 추진 - 기진행 및 신규 ODA 사업 관련 협의
	(한)보건복지부 (우)보건부	보건 협력 협정	- 양국간 정보 공유, 공동위원회 구성 등 합의 - 의료인 교육, 병원 운영, 건강보험 운영 관련 협력 지원
디지털·혁신	(한)국토교통부 (우)투자대외무역부	스마트시티 개발 협력 양해각서	- 우즈베키스탄 신도시 구축 및 기술 협력 관련 협의
	(한)한국산업기술진흥원 (우)농업부	스마트팜 산업기술 혁신 협력 양해각서	- 스마트팜 기술 도입을 통한 우즈베키스탄 농업 문제 해결 희망 - 고부가가치 농산물 생산기술 협력 추진
	(한)한국자동차연구원 (우)혁신개발부, 자동공업성	전기자동차 산업 기술 협력 양해각서	- 전기자동차 기술개발 협력 추진
기타	(한)외교부 (우)외교부	2022-2024 협력 계획서	- 수교 30주년 관련 협력 - 우즈베키스탄 거주 고려인 관련 행사 추진 협의

자료: 언론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3. 시사점

■ [정상회담 평가] 이번 정상회담은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의 수교 30주년을 앞둔 시기에 개최된바, 양국 간 미래협력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음.

- 양국 대통령은 디지털경제, 그린에너지, 사회복지 지원 강화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했음.
-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은 총 7건의 MOU와 2건의 정부 간 협정을 체결하는 등 실질적인 회담 성과가 도출되었음.
- 또한 의회 및 정부부처 간 신규 협의체를 구성하는 데 합의함으로써 사업 추진을 위한 소통 채널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됨.

-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이 우즈베키스탄 상원에 한국 협력 전담 특별위원회 설치, 투자대외무역부에 한국 전담 차관직 신설을 약속하는 등 한국과의 협력 강화 의지를 보인 점은 고무적임.

■ [유망 협력분야]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은 기존 제조업, 농업, 의료 분야의 협력을 강화 및 확대하고, 에너지, 자원 등 신규 협력 가능 분야를 발굴할 필요가 있음.

-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은 1996년 대우자동차 진출을 시작으로 자동차생산 및 관련 분야의 협력이 발전되었으며, 향후 내연기관 자동차 생산 협력을 기반으로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 자동차 기술 개발 및 생산 분야로 협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20]
  - ○ 전기차 개발 및 생산은 내연기관 자동차 대체뿐만 아니라 고부가가치 제조업 육성, 친환경 글로벌 시장 진출, 기후변화 대응 등의 측면에서 성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양국의 친환경 자동차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탈탄소화 등 기후정책에 대한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임.
- 코로나19 대유행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국은 우즈베키스탄에 의료인 파견, 의약품 및 의료장비, 의료 인프라 구축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보건 협력 협정'을 통해 한국의 보건·의료 체계를 포괄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됨.
- 양국간 희소금속 관련 협력은 한국으로서는 희소금속 확보를 위한 공급망 확대 측면에서, 우즈베키스탄은 희소금속 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기술 개발 측면 등에서 상생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디지털 분야의 협력은 양국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도록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디지털정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가능함.

■ [협력방안]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은 감염병, 기후변화 대응, 디지털 전환 등 새로운 글로벌 패러다임에 맞춰 교류를 확대하고, 지속가능한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ODA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 한국 정부는 2021년 신규 국제개발협력 정책기조를 공개했으며, 이를 토대로 대우즈베키스탄 ODA 사업에서 △포용 △상생 △혁신 △함께 등 4대 전략목표와 12개의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보건, 교육 등 분야의 성과 증진을 위해 전략적 연계를 시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특히,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빈곤퇴치, 교육 및 의료 역량 강화, ICT 인재 육성 등을 위해 정책을 수립 및 추진하고 있는바, ODA 사업을 통한 상호호혜적 협력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임.KIEP

20) 한국의 대우즈베키스탄 수출품의 절반 이상은 자동차와 관련된 품목으로 구성된 점을 토대로 양국 자동차 제조업 분야의 협력 규모를 평가할 수 있음.